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피해지역 현장 점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합쳐 돕겠다"...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별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별방리 경로당)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보니 석관천과 그 주변이 어떻게 토사로 덮인 것이 보이더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백 톤의 바위와 뿌리째 뽑힌 커

다란 나무들이 뒤덮여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반파·전파된 집들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별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 감천면장은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중 16일 동안 비가 왔다"며, "특히, 지난 14~15일 양일간 400~500mm 정도의 물폭탄이 산등성이에 퍼부어졌고, 물을 머금고 있던 계곡이 손 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며 이런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마을을 덮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 예천군수는 "이곳 뿐만 아니라 예천에서만 6개 지역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상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은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물으며 향후 이를 활용해 유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대통령은 잠시 비가 그친 사이, 띄약별 아래서 땀 범벅이 되어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별방리 경로당)을 방문했다. 임시주거시설에 모여있던 주민 50여 명은 대통령의 방문에 눈물을 흘리며 "찾아주셔서 고맙다. 저희들을 도와달라"며 호소했고,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 앉아 피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위로

했다. 대통령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씻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가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경로당 근처에서 주민들의 식사 등을 돕고 있는 적십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한쪽에 쌓여있는 생수와 생필품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주택 긴급 전기 안전점검 실시

침수 피해주택 등에 긴급 전기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경북도는 지난 13~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 주택 침수가구 및 임시대피시설 등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사와 함께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긴급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감전 등 2차 사고에 대비해 각 가구별 긴급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 등 손상 설비에 대해서는 무상교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시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택전반에 대한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누설전류 측정, 차단기·개폐기·전기배선의 설치상태 확

인, 접촉 불량 여부 점검 등으로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전기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비가 그치면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사협회, 보일러 제조사 등과 합동으로 침수주택 전기배선 기구 및 보일러 무상수리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장성길 경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장은 "이번 전기 유관기관과의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이재민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지하차도 안전 점검... "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안내하는 LED표지판 선제 보강"

18일(화),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낮 12시,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찾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룡터널 관리소장으로 부터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침수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의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찾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호우·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단 시스템의 작동과정을 확인했다. 이 자리

에서 오 시장은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위험 및 안전 등급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설현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전했다.

현재 서울시 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CCTV 확인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침수위험도 기준에 따라 오목 형태와 같이 바닥이 꺼지는 침수 취약 구역을 우선으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공평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춘 곳이 서울시 내에는 없는지 일단 점검하고 있다"며, "상세 점검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진입 차단 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LED표지판을 임시로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완벽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임시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급히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 운영으로 올 상반기 '안전불량' 12곳 적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운영해 화재안전 중점관리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12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12곳 모두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가스, 전기 등 점검능력과 전문자격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25명의 전문위

원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점검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단은 2월부터 6월까지 12곳을 점검해 12곳 모두에서 1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건을 입건하고, 2건은 과태료, 12건은 조치명령을 했다. 고양시 A공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 입건조치됐고, 고양시 B음식점에서는 미방염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적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추진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인들도 상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은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

제12대 경북도의의회 농수산물위원회, 1주년 의정활동 보고



코로나19 제약 속에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작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의회 출범하고 농수산물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농수산물위원회 최초 여성위원장인 남영숙(상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0대 및 11대 의회 농수산물위원회에서 활동한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황재철(영덕) 위원 등 정통파 재선위원들과 농수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업인 출신 이철식(경산) 부위원장, 노성환(고령), 박창욱(봉화), 이충원(의성), 최덕규(경주) 위원 및 행정전문가인 서석영(포항), 박홍열(영양) 위원 등 초선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 초기부터 의정활동 행보에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간 농수산물위원회의 굵직한 의정활동 위주로 1주년을 되짚어보면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2년 8월 25일 농수산물위원회안으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관심사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23년 6월 13일 경북도 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을 방문해 감마핵종분석기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언론과 소비자단체를 초청해 검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수단으로 실시하고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지난 1년 동안 농수산물위원회 소관의 조례발의 건수는 총 14건으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농업인 분야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사항 지적은 날카롭게, 농업 지원예산은 확대 편성으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42건, 건의 촉구 52건,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9건을 지적했다. 고품질 쌀 재배 지원, 과수 재배기술 연구 다변화, 현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지적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 농업예산 비중을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의 9.6%까지 확보하고 당초예산에서 감소했던 어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힘들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어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어업경제 회복과 미래신산업 성장양성에도 힘썼다.

남영숙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농수산물위원회 열 명의 의원님들과 현안사항에 대해 늘 소통하고 고민하며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며 "전반기의 남은 1년 여전한 물가, 유가, 환율의 3고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 "포스트코로나시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활성화 정책포럼 성황리에 개최"

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제19기 정책위원회 "포스트코로나시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및 서울시내 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 이후 시기에 필요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관계자, 학계·현장 전문가를 비롯하여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정책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3년 이상 지속됐던 코로나시대가 물러갔지만 경기침체 및 고물가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다시 겪고 있는 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 골목상권들과 어려움을 같이하고 그 대책을 서울시 관계자 및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모색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빈으로는 박인복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장,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인선 중앙대 창업교육지원센터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사회는 홍국표 정책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김용호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부터 진행했는데, 주제발표는 먼저 ▲서울기술연구원 김태현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상공인-인 트렌드와 생존과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어 ▲서울시 용보중재단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이 '서울시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정책 효과 분석'을, ▲서울시 발표를 맡은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은 '서울시 소상공인 역량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울시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은 '서울시 지역상권 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석주 서울중부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거시적 환경 분석

에서부터 제로섬게임에서 벗어나 외국인 수요까지 겨냥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등 관광명사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 5개 주제별로 심도있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참석하여 최일선에서의 현장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소상공인간 협업축진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양택균 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및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업종을 지정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용문시장상인회 반재선 회장은 기존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외에도 객석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쇠퇴하는 종로구 주얼리상가에 대한 마케팅 및 교육지원, 고령화로 지원정책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장홍보 강화,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등 장시간 의미있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정책포럼에서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극복이후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탁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핵심정책 정책 아이디어 마련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하면서, 끝으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서 서울시 약 130만명에 달하는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날이므로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상공인의 날"을 자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00만인 전환"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석주 서울중부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거시적 환경 분석

김용호 정책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정책포럼에서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극복이후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탁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핵심정책 정책 아이디어 마련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하면서, 끝으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서 서울시 약 130만명에 달하는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날이므로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상공인의 날"을 자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00만인 전환"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석주 서울중부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거시적 환경 분석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허원 회장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방안 도출 기대"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인천2)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기밀, 무너짐, 부딪힘 등)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중배, 이기형, 김영민, 서광범, 이재영, 박명숙, 김규창, 이재영, 안영규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 한준호 부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허원 회장은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점검과 상시적인 안전관리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AI)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예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요인을 탐지 및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발생 예상 부문을 탐지하여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원 회장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물류업체에서는 기본설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인건비 절감, 사고 발생 감소로 인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등이 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최만식/기자



전남도의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전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구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



전남도의의회 의원 연구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는 17일 '전라남도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분석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 위원을 비롯한 용역수행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정책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 추진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

힘 양상을 유형별·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종사자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이에 맞춘 제도 및 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원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관련 사항은 현장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양질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위원은 "실질적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라는 연구의 목적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연구용역이 단순 연구 활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개정이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대표위원인 박종원(담양1), 조옥현(목포2), 김민정(진도), 김재철(보성1), 김미경(정의당 비례대표), 손남일(영암2), 최정훈(목포4), 정영균(순천1), 박경미(광양4), 진호건(곡성) 위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와 처우개선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선 부: 내선 (117)
 광 고 부: 내선 (114) 오 페 니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진로 축제, 대학학과와 직장생활 파헤치기



7월 22일 오후 1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열려

금천구는 7월 22일 오후 1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 진로 축제 '나의 진로는'을 개최한다.

금천구가 주최하고 금천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금천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다.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직접 전 과정을 준비한다.

이번 축제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 대학 생활 '로망과 현실 사이', ▲ 실무 체험 '취미와 직업' ▲ 진로 골든벨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학 생활 '로망과 현실 사이'에서는 경희대(무용), 상명대(문헌정보), 성균관대(자유전공) 등 1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대학 입시와 전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려 준다. 참여하는 청

소년들은 1인당 5명의 대학생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실무 체험 '취미와 직업 사이'에서 경찰관, 축구선수, 사진작가 등 직장인 자원봉사자 10명이 함께한다. 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5개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생활, 실무 체험 내용을 정리해보는 '진로골든벨',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공연, 졸업사진 단체 촬영 등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9~18세)은 금천청소년센터 누리집 '열린마당-프로그램 모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진로 축제에서 청소년들이 평소에 관심 있던 대학 생활 및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한 씨앗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진행일시 2023년 7월 22일(토) 1시~4시반

진행장소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참가대상 9~18세 청소년(초3~고3) 100명 선착순

1부 대학생활 로망과 현실

2부 실무체험 취미와 직업

3부 런치쇼 공연&간식

4부 진로 골든벨

참여신청 QR코드

참가비 무료, 봉사시간, 간식, MCO벤트 선동진로 수료증(금천청소년센터 관광 명의)

문의 금천청소년센터 어어영 (070-7006-8180)번

성동구,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여름철 방충망 설치 집중 지원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현관 및 창문 방충망 설치 선호도 높아

서울 성동구가 수급자, 차상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가 여름철 방충망 설치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는 가구당 1회당 재료비 1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충망 설치 및 보수, 형광등 교체, 가스라이터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를 연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각종 해충 방지 및 통풍에 도움을 주며 안전잠금 장치가 장착된 현관 방충망 설치와 노후화된 창문 방충망 보수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에 대상자들이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기간 중 방충망 설치 및 보수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사근동에 거주하는 김OO 씨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면 집 앞에 있는 나무 때문에 벌레가 들어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방충망을 설치하여 앞으로는 안심하고 창문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동 돌봄 매니저가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거주환경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성동구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주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3월부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서 긴급 지원 가구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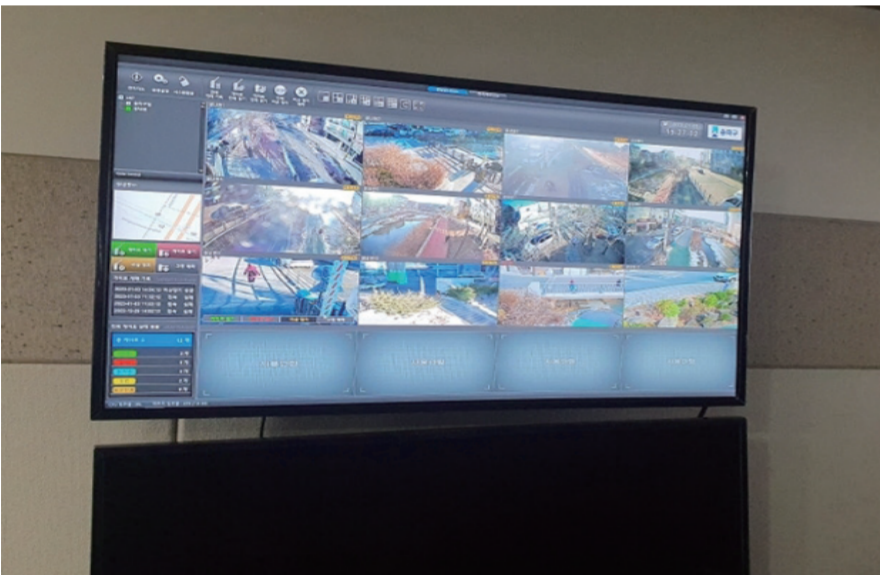
세부 선정 기준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의 생활밀착 집수리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민원기동대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폭우대비 빈틈없는 하천관리

'하천순찰단' 운영 통해 단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재해취약시설 상시 점검



송파구는 4개의 하천으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되는 집중호우로부터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하천순찰단' 운영 등 빈틈없는 하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구는 침수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관내 빗물펌프장 6개소의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송파구는 빗물펌프장 6개소에서 최대 1,200마력의 초강력 배수펌프 59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일일 4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를 막아 수문장 역할을 한 바 있다.

구는 송파구 치수과, 송파구 시설관

리공단, 송파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의 합동 순찰을 상시 진행하여, 하천 내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정비 및 하천 내 유수흐름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정리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구에서는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해 폭우시 주민들의 출입 통제에 중점을 둔다. 하천 범람에 대비하여 관내 4개 하천 진출입로에 설치된 차단시설 총 128개소(원격: 20개소, 수동: 108개소)를 작동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예를 들어 '성내천'에 돌발성 강우 또는 하천 수위 상승으로 범람 위험이 예상될 경우, ▲성내천에 대기 중인 '하천순찰단'이 즉시 출동하여 75개 수동 진출입로를 차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통해 원격 진출입 차단시설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12개 진출입로의 차단을 실시한다.

동시에 성내천에 설치된 ▲'재난문자정보시스템 전광판'에 대해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해당 하천 전역에

걸쳐 음성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이어서, ▲'하천순찰단'의 상시 순찰을 통해 성내천 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강우 종료 후에는 하천 수위를 주시하면서 평소위로 돌아오는 하천부터 즉시 복구작업을 시행한다. 산책로·자전거도로 청소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 복구 작업 등 정비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먼저 통제를 해제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화해마을은 같은 해 11월 차수벽 240m 설치, 차수판 16개소 배치, 연속형 빗물받이 110m 설치 등 배수 보강 공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호우 시 하천 진입을 자제하고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들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안전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경북예천여행 #어딜가도인생샷 #여행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 #육지안의섬 #뽕봉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관동도시예천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발판 마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위한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18일 도의회 통과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1인가구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포털은 1인가구 정책 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누리집이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주거, 안전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도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토대로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배포해 시군에서도 조례 마련을 통한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약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2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1인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2023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신상진 시장 "성남시 1인가구 행복한 삶 직접 챙긴다"

18일 전국 첫 市 직영체제 '힐링 스페이스' 개소식

성남시는 중원구 하대원동 100번지에 전국 첫 직영체제의 1인 가구 지원 시설인 '힐링 스페이스'를 설치해 7월 18일 문을 열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테이프 커팅식, 힐링 토크 '혼자가 아니야' 등이 진행됐다.

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이 있는 전국 25곳(서울 24·광명 1) 자치구나 단체 중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힐링 스페이스는 성남 전체 가구의 32.6%를 차지하는 1인 가구가 혼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모란역(4번 출구서 230m 거리) 인근의 민간 건물 4층 일부를 임차해 349㎡ 규모로 마련됐다.

이곳엔 커뮤니티 홀, 심리 상담실(2

개), 동아리실(2개),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섰다.

총 4명의 직원이 상주해 1인 가구 자조 모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활성화하고, 여가, 문화, 취미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심리·정서 치유 사업,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편다.

향후 욕구 조사를 통해 요리·미술·재정·인문학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예약 후 찾아오면 음악 감상, 영화 상영, 독서,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힐링 스페이스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을 다니는 24세~64세의 1인 가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 여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다.

시는 운영 성과가 좋으면 힐링 스페이스를 1인 가구 총괄 지원센터로 하고, 분당과 수정지역에 거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성윤/기자

화성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화성시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지원시설의 설

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6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인

구는 186,944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덕이동 누리버스 N002번 개통식 개최 전기버스 3대가 30분 간격 운영...덕이 지구 교통 불편 해소 기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7월 17일 덕이근린공원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 이용우 국회

의원, 도의원.시의원, 덕이동 직능단체장, 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 누리버스 N002번 개통식'을 개

최했다.

이날 개통한 고양누리버스 N002번은 덕이동 동문3차아파트-하이파크 단지-대화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전기버스 3대가 18분~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고양누리버스 N002번은 덕이 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선8기는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기초에 맞추어 덕이 지구 누리버스

는 22인승 전기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일산하이파크아파트 입주자 주민은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 아파트 단지과 대화역 사이 구간이 많이 붐빈다. 누리버스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버스 개통을 반겼다.

이날 개통식에서 덕이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라희)는 주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이동환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영기/기자

수원FC 선수들, 안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납공간 정리 봉사활동 펼쳐

최순호 단장과 선수 5명 봉사활동 참여



지원히 정리하면서 비지땀을 흘렸다.

수원FC 소속 광동준(수비수, 32번) 선수는 "자원봉사에 처음 참여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좋았다"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서 저 자신이 힐링(치유)되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심리적 안정과 치유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며 "선수들이 참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이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나경 안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아동의류가 너무 많아 수납공간 정리가 염두에 가지 않았다"며 "시민구단 수원FC 선수들이 봉사활동으로 도와줘서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협력 단지 조성 '속도'...일반산업단 물량 확보

처인구 원삼면 일원 26만㎡ 신규 산업단지 물량 최종 배정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물량 26만㎡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지사에 배정하며, 시·도지사가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의 '21~23년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업지역(산업단지) 세부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지난 14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량을 최종 배정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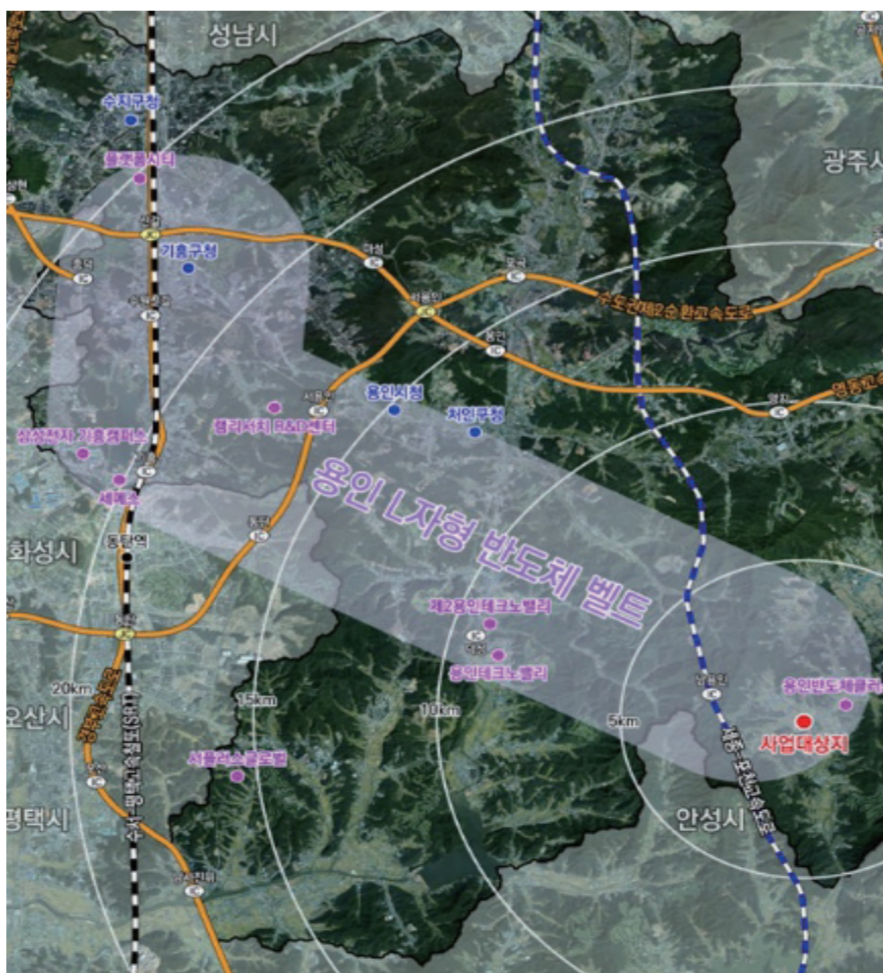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26만 37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민관합동 개

발로 추진하며, 오는 202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와 50여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 조성을 위한 물량을 최종 배정받아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을 시작으로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추가 산단을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2023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 잠정 연기

시흥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화MTV 거북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3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를 잠정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경인방송 및 시흥 거북섬문화협회가 주관해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거북섬 밤 페스티벌'도 함께 연기됐다.

시는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어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자 이번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마 기간 재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 누리집과 공식 SNS(누리소통망) 등에 축제 연기 안내문을 공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제는 지역민이 함

께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돼야 하므로, 수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마을에서 이번 축제를 잠정 연기했다.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지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으니,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위해 민간투자 4조 원 유치.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

경기도, 17일 에스케이이엔에스 등 8개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업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 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단지는 환경·민원·계통연계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업단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이를 정도로 높아 RE100 달성에 효과적이며, 산업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산업단에 태양광 2.8GW를 보급할 계획이다. 2.8GW는 원자력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들을 할 수 있어 다른 산업단지들의 추가 참여도 예상된다.

50개 산업단에 예정된 2.8GW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임대 해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간 총 1천억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일석삼조의 의미가 있다"라면서 "첫 번째는 2.8GW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도의 재정 지원 없이 협약에 참가한 기업들의 투자로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장소를 제공한 산업 내 기업들이 연간 1천 억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신재생에너지를 충분히 조달하고, 관련 업체들은 사업 타당성에 따라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협약에는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전의한 위원장과 총괄분과 위원들도 참석했다. 협약장소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는 경기도에서 토지를 임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향후 약 7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인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기업·기관 밀착지원

개인정보보호할 대체 정보로 부상하는 가명정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광역시시는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18일 송도 미추홀타워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 최창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디지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와 보안 또한 중요하다. 때문에 공공 및 산업분야에서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 등 가명정보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소 준비를 해왔다.

센터는 가명처리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 세척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인프라) 제공, 가명처리 및 결합 지원, 자문·컨설팅 등의 지원할 예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세미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물류산업,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장은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인천시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시니어클럽 새 수탁법인 운영 시작

한국재활복지회, 국제연꽃마을 2028년 7월까지



안양시는 지난 15일부터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안양시니어클럽을 맡아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안양시니어클럽을 함께 운영해온 불교안양원(대표 전제진)의 위탁 기간이 지난 14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탁자 선정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6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곳의 새 복지법인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두 복지법인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을 각각 2028년 7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오동록 한국재활복지회대표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성화된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당호 국제연꽃마을대표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며 안양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추진해온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특화된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안양

시도 노후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는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업의 경험을 쌓아온 법인이며,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도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운영해온 법인이다.

2000년 5월 16일 개관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74-30)은 올해 실버인력뱅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식사배달 등 총 9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9개 자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하루 평균 8백여명의 노인들이 복지관을 찾고 있다.

안양시니어클럽(동안구 흥안대로94번길 23)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15년 12월 4일에 개관했다. 올해 시장형 일자리 368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412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72개 등 총 1052개를 발굴해 운영 중이다.

신우용/기자

부천시, 통합돌봄 발전·소통·공감 연찬회 열어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능동적 대처...틈새 없는 통합돌봄서비스 위해 노력



부천시는 지난 17일 2024년 '통합돌봄과' 조직개편을 앞두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응 방안을 찾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시 통합돌봄과 4개 팀 18명의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 담당자별 추진사업 공유 ▲ 절의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으며, 통합돌봄의 고도화를 위한 자유토론 등 실무자로서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돌봄 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되는 전달체계에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누수 없는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의료 포함 분야별 서비스와 융합·조정을 강화하여 이달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안산시, 제24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11인 선정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 김홍도미술관(대표이사 이성운)에서는 2023년도 단원미술제 선정작가를 공모했다.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한국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매년 단원미술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매입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단원미술제는 총 228건이 접수됐으며, 7월 5일 열린 1차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신청서 및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총 21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1차 심사위원장은 "이번에 접수된 작품의 장르가 다양화, 한국화에 국한되지 않고 조소, 공예, 사진, 판화, 드로잉, 미디어 아트, 설치 작품 등 각 유형별 현대미술로 구성되어져 심사의 평가가 쉽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7월 12일 열린 2차 심사에서는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전시를 할 11인의 선정작가를 선정했다. 2차 심사위원장은 "작가 본인의 삶과 시각을 접목한 발상, 작업에 임하는 진지성과 성실성, 모색 중인 조형적 수사학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을 남겼다. 자세한 심사 총평 전문은 김홍도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1명의 선정작가는 김용원, 김태형, 민보라, 박상희, 박지수, 박찬영, 윤선홍, 장은우, 전강희,

최지현, 한상미 작가이다. 3차 심사(대상 선정)는 이번 단원미술제 전시 기간 중에 진행되며, 제24회 단원미술제 전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홍도미술관 1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원미술제 기간에는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후속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 제23회 단원미술제 대상 수상자인 나광호 작가의 개인전이 김홍도미술관 상설미술공장에서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이천시, 모가면 주민총회와 평생학습이 함께하는 '모모의 행복축제' 성황리 개최



이천시 모가면주민자치회는 15일 모가면다목적관에서 '모모의 행복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에는 모가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회 모가면주민총회와 평생학습발표회를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모가면의 캐릭터인 모모의 이름을 붙여 '모모의 행복축제'로 이름 지었다.

1부 축제의 장으로 심쿵난타교실, 장수노래교실, 모가틀하모니, 드럼 및 색소폰교실로 평생학습교육을 통해 그들

안 같고뒸는 실력을 유감없이 표현하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유도하면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2부는 제3회 모가면주민총회로 진행됐다.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다음 년도 자체계획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자치회 공론의 장을 말한다.

모가면주민자치회는 모가면의 필요한 사업의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자체계획의제로 ▲ 모가면 어린이 모두 모여라! ▲ 모모미로 돌려

갈 포토존 조성 ▲ 모가! 노래자랑 ▲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 주민자치 알리미 ▲ 문화복지센터 모모 캐릭터 조형 사인물 설치 총 6건의 의제를 상정했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 모가중학교 입구 노후벽면 LED 조성사업 ▲ 가동천 LED 환경개선사업 총 2건이 선정됐다. 이에 자체계획의제 총 274표를 얻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87표를 받은 '가동천 LED 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화석 모가면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우리마을의 자체계획을 직접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태영 모가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함께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모가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울/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범람 우려 하천 긴급 점검

보성 벌교천 살피며 산책로 통제·주민 대피 등 대비 철저 당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범람이 우려되는 보성 벌교천 현장을 살피고, 하천의 범람이나 독 붓기와 같은 상황에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저녁 호우경보가 발령된 이후 구례 309.3mm, 담양 299mm, 곡성 270.5mm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18일 새벽 보성과 장흥에서 시간당 54mm, 광

양 40mm 등의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지역에선 15일부터 내린 비로 건축물 10동, 태양광발전소 사면유실 1건, 토사유출에 따른 도로통제 4개소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남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19일까지 2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보성 벌교천은 지난 1981년 제 18호 태풍 '아그니스'로 일강우량 400~500mm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벌교천 유역에 큰 피해를 남겼다. 벌교읍 시가지 지대는 벌교천보다 낮아 매년 집중 호우 시 범람 우려가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도 동부권에 비가 많이 올 예정이어서 벌교천 산책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이 우려된다"며 "산책로 출입통제 및 주민 대피 등의 대비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사태 관리지역, 위험 축대, 절개지, 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예측 시 주민이 즉각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대피 중인 주민들에게 재해구호물품을 신속히 배부하고 피해 현장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응급복구를 시행하라"고 독려했다. 전남도는 벌교천 범람 예방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이를 위한 설계를 2022년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준설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순천시, 하절기 건강관리 이렇게 예방하세요

식중독,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매개체 감염병, 온열질환 등 여름철 대표적 취약 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



순천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여름 계속되는 장마로 식중독, 감염병 확산과 더불어 이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등의 우려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일선 읍면동에서 현장 돌봄 행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건강관리대책은 여름철 대표적 4대 취약 질환인 '식중독,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매개체 감염병' 등의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대학 등 시민들을 찾아가는 교육·홍보와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을 통해 폭염특보(주의보, 경보)도 전파할 방침이다.

여름철 대표적 4대 취약 질환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식중독은 병원성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유독·유해한 물질(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장해로, 예방 수칙은 ▲절절한 온도 및 유통 기한에 맞춰 식재료·음식물 보관 및 사용 ▲균, 오염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소독과 함께 청결한 환경에서 음식물 가공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 장관감염증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요 예방수칙은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서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서 먹기 ▲이 밖에도 설사 등 증상자의 경우 음식 조리 금지 등이다.

셋째 매개체 감염병은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간에게 옮기는 매개체(vector)를 통해 확산 되는 질병으로, 주로 혈액을 통해 감염병을

전파시킨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대표적인 감염병 매개체는 모기, 진드기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은 모기나,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의 주기적 사용하기 ▲긴 팔,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등산화, 장화 등 안전한 옷 착용하기 ▲휴식 시 돛자리 사용하기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숲에 앉지 않기 ▲귀가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기 ▲귀가 즉시 샤워·목욕하기 ▲몸에 벌레 물린 상처(또는 검은 딱지) 또는 진드기가 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등이다.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넷째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예방수칙은 일상 속 직사광선이나 더위를 피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특히 ▲더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 머물기 ▲샤워 자주 하기,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 차단하기 ▲물 자주 마시기 등을 통한 수분 보충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건강관리대책 기간 중 식중독 예방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은 물론, 단체식사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합동 위생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샤워 자주 하기 ▲다소비 식품에 대해 집중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1:1 현장 코칭을 통해 식재료 입고 → 조리 → 섭취 과정의 위생취약분야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 등을 컨설팅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소의 경우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천시 보건소는 여름철 식중독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개반 15명으로 '식품안전기동반'을 편성해 식중독 예방관리, 환자 발생 모니터링, 집단환자 발생 시 검체·검사 실시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박람회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불편 등이 우려된다"라며,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맛의 고향 순천의 이미지나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관내 식당 등 위생업소의 청결한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행정을 통해 불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봄 행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남원시, 인재학당 건립·운영 통해 인구유출 막고 지역 교육격차 줄인다. 지리산권 인재양성 프로젝트 '레디 GO'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선정, 150억 확보, 오는 2025년까지 건립 완료,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의 자녀교육 문제는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유발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농촌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교육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녀교육 문제가 더욱 심각, 그로인한 타 지역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남원시의 경우 2021년 기준 남원시 전입·전출 사유별 감소인구 수에서 직업으로 340명, 교육으로 251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자 남원시가 지역 내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고 사교육비 절감 및 양질의 교육제공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할 목적으로 공립학원 성격의 '남원 인재학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시는 최근 '남원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초읽기에 돌입했다. 밑그림을 살펴본다.

남원인재학당 건립 왜 필요한가. 남원인재학당은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고도 남원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선 8기 교육분야 공약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기금 150억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인재학당 운영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전복연구원에 '남원인재학당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남원시 교육여건분석 △인재학당 건립의

견수렴 △인재학당 운영방안 결과 등을 도출했다.

그 결과 남원시 교육여건 분석에서는 학령인구(7~22세)가 '11년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13~15세(중학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38.8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 중학교 전체 졸업자의 지속적인 감소('16년 대비 -34.5%)로, 관내 고 진학 학생 수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게다가 2021년~2022년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타 시도 진학 비중이 높고, 수도권 상위권 및 전북 내 기타 대학 진학자는 '21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여건을 입증하듯, 지난 3~4월 남원시 초·고등 학부모 352명, 중·고등 학생 256명 등 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원 인재학당 설립 의견 수렴 용역 모바일 설문조사에서 남원 거주 학부모에 있어 자녀교육 불안감이 75.8%로 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특히 학부모 87.2%가 인재학당이 필요하고, 95.2% 이상이 향후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 또한 대학입시에 도움될 것으로 93.4%, 공립학원 이용의향 69.6% 등의 의견이 조사됐다.

남원 인재학당, 용역 통해 운영 밑그림 완성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남원시는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홍보 등을 기반으로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전문가 등을 통해 2026년 인재학당 운



영 전까지 최상의 운영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원인재학당 운영 기본방향도 지역응답인재 육성차원에서 공립학원 성격으로 운영하되 △관내 거주 학생, 공개경쟁 선발 원칙, 기회균등 선발, 학교장 추천을 통한 공정한 선발△ 평일 방과후 정규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안전한 환경△단계별·수준별 맞춤형 수업△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 등으로 좁혀졌다.

남원 인재학당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인접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4,000㎡ 규모로 제안됐다.

공간은 1층 강사대기실, 사무공간, 회의실, 2~3층은 첨단 스마트 강의실, 상담실, 그룹스터디실, 체력단련실 등 전문학습공간으로 구성, 4층은 휴게실과 강당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식당과 육상전원을 조성, 휴식공간으로 제안됐다.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브릿지를 연

결, 하나의 공간으로 연계, 활용될 계획인 만큼 이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물론 지역 교육시설의 랜드마크가 기대된다.

인재학당 수강생 선발은 정원 내, 정원 외로 구분, 13개반 235명(중등부 2~3학년 각 50명, 고등부 1~3학년 각 45명)을 공개경쟁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중등부는 기초학력강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부는 수능 대비 주요교과 심화학습, 개인별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교육인구 유출방지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인재학당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인재들이 교육격차로 인해 불평등 받지 않도록 인재학당 건립·운영을 꼭 실현시켜 남원을 지리산권 지역인재 양성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전남 함평군이 '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산불 피해 복구에 발 벗고 나선다.

함평군 17일 "올해 4월 신광·대동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보고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운영령 함평군의회 의장, 산림조합장, 축협장, 마을주민,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사의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 관광 자원화를 통한 군민 소득창출 방안, 임야 내 불에 탄 폐목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천성은 함평군 산림공원과장은 "오늘 보고회는 기본계획의 방향 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관광산업 등 분야별로 가능한 사업이 기본

함평군, 대형 산불 피해 복구 '첫 삽'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수립...

2024년 복구 작업 실시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불에 탄 나무를 활용해 톱밥 등 축산농가에 필요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산불 피해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군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2023년 11월 중 마무리되며,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산불피해지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나주시청 직원들, '23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시정 연구모임 뜻세움 '뉴 노멀'(New Normal) 팀

나주시청 직원들의 시정 연구모임인 뜻세움의 '뉴 노멀'(New Normal) 팀이 최근 제주대학교 산학융합원 첨단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한국컴퓨터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뜻세움은 시민·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함께 연구과제를 선정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시정연구모임 동아리다. 지난 2011년 발족해 올해로 13번째 운영되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뉴 노멀팀은 이번 대회서 '메타버스 나주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뉴 노멀팀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정책홍보실, 건축허가과, 감사실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노필 팀장은 "관광산업은 뉴 노멀 시대에 언택트에서 온택트 형식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

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나주형 체류관광 육성 정책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나주시장은 "바쁜 일과 이후 퇴근 시간을 활용해 나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 우수논문상까지 수상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논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객 유입 로드맵을 잘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사)한국컴퓨터정보학회는 6천6백명이 넘는 학계, 산업계, 연구소 및 유관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학회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인증,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과 산업계와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학술의 성과를 산업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소상공인 자금난 극복...대출 이자 지원 "최대 5천만 원 대출 이자 연 3%, 3년간 지원"

강진군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대출금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약정 이율 중 연 3%의 이자액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 지원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9개소가 접수한 상태이며, 추가 사업으로는 11개소가 지원 가능하다. 단,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는 자부담으로, 3년 이후 이자 지원이 종료되어 상환 완료 후 재대출 시 6개월간 이차보전 신청은 제한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강진군과 관내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 진행한다. 담보 종류가 '보증서'인 경우 신용보증재단(해남지점)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신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협약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협약 은행은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광주은행 강진지점, 강진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신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산림조합, 강진군세마을금고,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등 10개소이다.

접수는 강진군 인구정책과 소상공인 지원팀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구비서류로 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기준(지방소득세, 재산세) 100만 원 이상 납입자, 타 사업으로 이자 지원 받는 경우, 융자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진현 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신념으로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다양하게 힘쓰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구례군, 우리 땅 재조사사업으로 빠르게 정리한다

광의면 대전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 마치고 경계 협의조정 절차 진행

전남 구례군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3년 광의 대전 사업지구 816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실시했다.

구례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대마을회관을 방문해 일대일 상담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171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구례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드론 영상 자료를 활용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로 사용하는 현실경계의 차이점, 수주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토지소유자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땅의 경계를 확인하고 경계 설정에 동의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언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현지조사와 이해관계인 간 협의, 조정을 거쳐 경계설정에 반영된다. 구례군은 오는 10월 초순까지 경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대전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대마을회관을 방문해 일대일 상담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171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구 관계자는 "언제든지 부서방문, 전화상담을 통해 토지경계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충분히 제언할 수 있다"며, "적정한 경계 설정을 위해 이해와 양보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토지면 구산 사업지구는 현재 지적 재조사에 따른 경계 설정이 추진 중이며,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는 오는 9월에 옥산마을회관 등 4개 마을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 및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주민은 구례군청 종합민원관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현/기자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안양면 이현진 '장흥의 품에 안겨, 오롯이 착륙' 대상 수상

장흥군은 17일 "살아본게 장흥이 최고여라"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흥살이의 행복한 모습과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군민과 향우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기집은 장흥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길라잡이로 도 활용된다.

장흥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장흥에 살면서 겪는 결혼, 다자녀, 다세대 가정의 행복하고 진솔한 다양한 삶의 이야기, 청년 성공 창업, 일자리, 귀농·귀촌 정착 사례를 주제로 했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4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대상 1편, 최우수 3편, 우수 4편, 장려 7편 등 총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안양면 이현진 씨의 '장흥의 품에 안겨, 오롯이 착륙'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이 주어졌다.

이현진 씨는 장흥의 자연풍경에 반해 덜컥 내려온 젊은 부부의 이야기, 시골로 내려와 정착하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장흥에서 농부사도 짓고, 작은 텃밭도 일구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소소하고 단순한 삶의 일상을 생생하게 적어 내려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홍달호(대덕읍) 씨의 '반딧불이도 신이나 춤추는 곳 장흥!', 이로운(장흥읍) 씨의 '사계', 박애숙(안양면) 씨의 '꼬끼오 알말로 여는 활기찬 아침'이 선정됐다.

최우수상 3명에게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각 50만원이 전달됐다.

우수상 4편은 30만원, 장려상 7편은 10만원의 장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김성 군수는 "올해 수기작에는 어머니 품 장흥의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넉넉한 인심이 잘 표현돼 있다"며, "장흥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선작 15편은 수기집으로 발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전일 희망자들에게 배부되어 장흥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현/기자



전북도,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 출범

김관영 도지사, "청소년과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노력하자"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협업해 추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전북도는 18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을 비롯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 학생의회,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 등 9개 기관장과 청소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총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관)에서는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전라북도가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는 지역 수요 중심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탄력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시한다.

전라북도는 '함·성·in 전북'이라는 부제와 기관간·사업영역별 벽을 허물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도내 청소년 인적·물적 자원 조사 및 정보 제공,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공동의 아젠다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공간 조성 등의 공동 사업을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그 성과

에 따라 성장 모델을 전 시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함·성·in 전북'은 청소년 관계기관이 청소년 정책을 위해 함께 내는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와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기관이 함께 성장하자는 선언적 의미, 민선 8기 도정의 슬로건인 함께 성공의 의미 등을 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협업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전북청

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보호),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활동), 전북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 전북학생의회(청소년), 전주고등학교(학교),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보호자) 등 9개 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출범을 선포한 뒤 성공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대의 방향'이라는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온상권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의 '청소년이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 최영숙 익산시청 교육청소년과장의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안성균 전주야호교육동학지원센터장의 '지역행정 및 교육협력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의 '청소년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 사회 변화' 등 각 영역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다.

협의체의 공동의장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협력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청소년과 청소년 관계 기관 등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실태와 그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도 다르다"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소년을 지지하고 돕는 데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져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남홍/기자

전남도, 7월 친환경 농산물에 '유기농 포도' 완도 청정바다 해풍 맞아 향미네랄 풍부하고 당도 높아



전라남도는 완도 청정바다 해풍을 맞고 자라 향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유기농 포도를 7월의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도는 예로부터 신의 과일로 불렸다. 섬유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시력 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알알이 모인 과일이라 효능이 많다.

포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곳이 있다. 완도 군외면 해안가 남선리. 이 마을의 '해변

포도'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일반 육지 생산품에 비해 향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17브릭스(Brix) 이상으로 일반 포도보다 2~3브릭스 높다.

이곳 청정 해안가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김준환(55) 농가는 올해 7월 중순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 시설포도는 7월 중순, 노지 포도는 8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해 휴가철 완도를 찾는 관광객은 싱싱하고 달콤한 유기농 포도를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김준환 농가는 2003년 고향으로 내려와 해변포도 작목반에서 포도 재배를 시작했다. 군외면 해안가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포도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완도 자연 그대로의 친환경이다.

유기농 포도 재배 면적은 1ha로 캠벨 품종이 주를 이루며, 청포도 세네카, 베니바라도, 샤인머스켓 품종도 생산하고 있다.

김준환 농가의 고품질 포도의 비결은 90% 이상 완속한 과실만 수확하는 것이다. 포도는 후숙이 안 되는 과일이므로 최대한

완숙되기를 기다려 수확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시설하우스와 간이 비가림 시설(노지)에서 1톤을 생산했으며, 1kg당 판매 가격은 평균 1만 원 정도로 1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당도가 높고 달콤한 포도는 당일 수확 당일 판매가 이뤄진다. 현장 판매가 90%를 차지하는 만큼 김준환 농가 유기농 포도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나머지는 인터넷 쇼핑몰,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 과일은 생산이 어려운 반면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며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완도 유기농 포도는 완도군청 농업축산과에 문의해 구매할 수 있다.

양영욱/기자

진도군,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7백여만원 기탁

지역 인재육성·교육발전 등 총 108억원 지출

진도군민과 단체들이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700여만원을 지난 17일 기탁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자들은 의정활동 1주년을 맞아 한달 월급 전액을 기탁한 진도군의회 이현명 의원 269만5천원, 진도고등학교 2학년 최유림 학생 100만원, 가수 설화 100만원, 행정사 조명현 100만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진도군수협분회에서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창업 수익금으로 얻은 142만4천원이다.

기탁자들은 "진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역 인재 육성에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

을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장학금 227억원을 조성했고, 7월 현재 11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 36억원, 교육경비 46억원, 명문고 육성 18억원, 학교시설 8억원 등 총 108억원을 지급,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장학금은 기탁하신 군민과 단체들의 뜻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화순군, 동북면 하류 저지대 마을 주민 대피 독려

동북면 홍수위 근접에 따른 선제적 조치

화순군은 18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북면 인근 마을 주민 대피를 독려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동북면 수위는 168.5m로 만수위(168.2m)를 약간

넘어섰다. 이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 읍·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상황을 전파하고, 마을 주민 대피 권고에 나섰다.

군은 우선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여 동북면 하류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

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대피 대상 마을은 동북면 연둔리 등 7개 마을, 사평면 장전리 등 8개 마을로 가급적 인근 친척 집, 마을 경로당, 고지대 안전 가옥 등으로 우선 대피하되, 불가피한 경우 동북면 마을 주민들은 화순동북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사평면 일부 주민들은 복지회관에 대피토록 했다.

또한 응급구호 세트를 전진 배치했으며, 군청 실·과·소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은 마을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

윤경호/기자

경북 문화도시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다

경북도·포항·칠곡·경주·안동 '경북 문화도시 포럼' 공동개최



경북도는 19일 칠곡군교육문화화관에서 '2023 경북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부지사, 칠곡군수, 경주부시장, 안동부시장과 시군 문화도시 관련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관, 시민 활동가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인 포럼은 광역 중심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포항시·칠곡군, 제5차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안동시·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 지역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

만의 매력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별 추진사례 발표, 원탁토론 등의 담론과 문화도시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제 강연으로 진행했다.

포항시는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기반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지속가능 전략 사례, 칠곡군은 지역문화 생태계가 만드는 15분 문화생활권 사례,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례, 안동시는 거버넌스 통한 도시문화 브랜드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발표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융·복합한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사업을 사람이 모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의 롤 모델 사업으로서, 도와 시군간 핵심 연계·협업사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례 발표 후, 사례에 담긴 핵심단어인 포항의 '지속가능성, 특성화', 칠곡의 '15분 문화생활권', 경주의 '로컬크리에이터', 안동의 '거버넌스, 도시브랜

드'등을 주제로 8개 원탁을 구성하고, 경북 문화도시 정책 방향과 도시 간 실질적 연대·협업 방안에 대해 원탁별로 토론했다.

앞서 전복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과 광역단위 문화도시 연계발전 방향'과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장이 문화1호선의 도시 간 협력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 대해 주제 강연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주최 시군별로 문화도시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 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문화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인 시군을 대상으로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와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문화 정책으로서 문화균형발전과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24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



다.

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평가해 6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5년간 총 국비 최대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포항과 칠곡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동과 경주가 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법정 문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발표·현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지자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2025~2027년까지 3년간 총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의 경제부지사는 "문화의 힘은 지역발전과 활력을 도모하는 묘약"이라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민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업이니 만큼, 도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경북이 가진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양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7,177건, 4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화·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초한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영양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식탁의 행복, 대구 맛집 밀키트 '대구로'에서 만나요

7월 20일부터 대구로에서 대구 밀키트 구입가능, 밀키트 산업 활성화 기대

대구광역시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역 공개발업 대구로에서 '대구 밀키트 100선'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구 밀키트 100선'은 지난해 대구시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대구 100점을 비롯해 분식, 한식 등 대구맛집 100개소의 대표메뉴를 밀키트 상품화해 출시했다.

기존 대량 생산체계의 밀키트와 달리 '대구 밀키트 100선'은 좋은 재료와 엄선된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외식업소의 정성과 손맛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달 20일 우선 40개 업소가 대구로에 입점하게 되며 배달앱 내 별도 밀키트 전용관이 운영돼 시민들이 손쉽게 밀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올해 상품화되는 100개 맛집 밀키트가 추가로 입점돼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대구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간 밀키트 업체의 개별 온라인 판매, 홍보 등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대구로 입점으로 밀키트 업체의 판로

확대 및 시민들의 밀키트 구입 접근성과 상품 인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는 20일 대구로 입점을 기념하여 밀키트 리뷰 이벤트를 실시해 선착순 1,000명에게 대구로 할인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대구로와 협업해 대구 맛집 밀키트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정외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대구로 입점을 계기로 밀키트 업체의 판로 확대 및 구입 접근성이 향상돼 외식업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대구 밀키트 100선에 대한 품질 및 위생관리와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향노화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청송군은 오는 12일 임업인종합협수원 1층 대강당에서 청송군 향노화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를 떠나는 지역 학생과 청년의 유출을 방지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청송군에 향노화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과 연계해 양질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 청송군을 비롯한 대구가톨릭대, 영노화연구원, 청송중고등학교, 청송여중고등학교, 진보중고등학교, 현서중고등학교와 교촌F&B, 제펫, 네오루틴, 바이나리, 레벨체인지, 와이에스중합상사 등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협약은 △기업은 향노화산업 분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채용 △대학은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개발과 인재양성 △고교는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산

업 인재육성 △지자체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대구가톨릭대는 영노화연구소 분원 및 청송캠퍼스 개설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춤형 인재양성에 나서고, 교촌 F&B, 제펫 등의 협약기업은 향노화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리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역 청년들이 고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나간다."며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역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수도권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우호협력도시 파나마시티에서 부산시립무용단 한국전통무용 공연 개최!

18일 19시 파나마 아나얀시(ANAYANSI) 극장, 부산시립무용단 전통무용 공연 개최 부산의 순수 전통무용 공연 선, 「예술 문화 도시 부산」 알리고, 참석 파나마 고위급 인사와 면담해 물류·항만·해양, 금융, 디지털, 정보통신(IT) 등 주요 경제 분야 교류 방안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당위성 직접 알릴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 "일회성 공연이 아닌, 부산의 고유한 문화 자력을 직접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혀

부산시는 현지시각 지난 18일 저녁 7시, 파나마시티 아트라파 컨벤션센터 아나얀시(ANAYANSI)극장에서 부산시립무용단 전통무용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박형준 시장이 파나마를 찾았을 때 파나마 현지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 기획됐다.

첫 번째 공연지로 선정된 파나마시티는 지난 2016년 부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뒤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교류를 이어왔으며, 파나마시티 시장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사벨 세인트 말로(Isabel de Saint Malo) 부통령 겸 외교장관 일행, 마르타 엘리다 고르돈(Marta Elida Gordón) 외교차관, 라파엘 사봉헤(Rafael Sabonge) 공공사업부장관 등 고위급 주요인사들이 부산을 방문한 바 있다.

파나마 운하(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파나마 운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항은 세계 150여 개국 500여 항만과 연결되는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연간 환적물동량 1,227만 TEU를 처리하는 세계 2위 환적 거점 항만이다.)로 널리 알려진 파나마는 중남미 지역 내에서 해상 및 항공, 교통, 물류, 금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특히 인근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파나마에서는 2002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파나마 텔레비전(TV)에 방송되고 있으며, 케이팝(K-Pop)의 인기도 상당하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 고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중요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을 단장으로 부산시립무용단 파견 공연팀을 꾸렸으며, 이번 공연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으로 도약하는 활발한 문화외교의 장(場)으로 마련했다.

파나마 주요 경제·문화 분야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부산과 파나마의 물류, 항만·해양 행정, 문화, 관광, 보건, 금융, 디지털, 정보통신(IT), 그리고 분야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직접 알리고,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식량문제, 인재양성 등 세계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솔루션)을 모색하는 이상(비전)도 함께 제시한다.

이날 부산시립무용단이 파나마에서 선보일 공연레퍼토리는 '춤<본색>'이다. 이는 부산시립무용단의 고유한 공연레퍼토리로 자연의 색과 아름다움을 담은 '한국춤, 본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춤의 가치를 높이는 공연으로, 「예술 문화 도시 부산」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처우무, 태평무, 춘석, 동래학춤, 고혹, 진도북춤, 사랑가, 풍류장고, 운무 등으로 구성돼 있고, 부산시립무용단의 공연레퍼토리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연은 아즈민 콜론 데 코르티조

(Yazmin Colon de Cortizo) 영부인과 지셀 곤잘레스 비야후에(Giselle Gonzalez Villarrue) 문화부 장관 등 파나마 주요 고위급 인사 300여 명을 비롯해 2,000여 명의 관객이 관람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지난 17일(월) 파나마시티 현지에서 이성권 경제부시장, 정진규 주파나마대사, Giselle Gonzalez 문화부 장관, 이정윤 부산시립무용단 무용단 총괄 감독이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지의 공연개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현지 언론은 부산의 수준 높은 전통 문화공연 개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년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발한 교섭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부산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요청해 온 곳이 많았다"라며, "이번 공연단 파견은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닌, 부산의 고유한 문화 자력을 직접 선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나마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은 아프리카 신규 자매도시에 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이다"라며, "부산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경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482대 규모 보급 시작

지난해 대비 141대 증가한 482대 최종 보급

경북도는 디지털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대상자 482명을 선정해 오는 21일부터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수량 341대 대비 141대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와 올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자가 1천 명이 넘는 등 수요가 많아 경북도가 보조기기를 최대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한 결과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천 53명이 신청했으며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참여도, 전문가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보급자 482명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19일부터 경북도 누리

집(gb.go.kr) 알람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개인은 21일부터 31일까지 제품가의 10~20%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기 보급은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이뤄진다.

한편, 경북도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소자와 개인부담금 미납자가 발생할 경우 8~9월 보급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에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스타배우 뜨니, 안동 관광도 뜬다’ 안동시, 공격적 TV 마케팅으로 관광매력 UP

시골경찰나는 솔로·악귀 등 인기 TV프로그램 제작 지원



안동시가 엔데믹 이후 폭증하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뜨는 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TV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신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는 ▲웰니스 ▲촌캠프 ▲워케이션에 발맞춰 TV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한 안동관광 붐업(Boom-up)에 나섰다. ‘세븐틴 In The Soop’, ‘시골경찰 리턴즈’, ‘악귀’, ‘나는 솔로’ 등을 연이어 제작 지원하며 TV작품 흥행에 힘입어 안동 관광명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먼저, 올해 초 방영한 한류아이돌 세븐틴의 땀가마(도산면 가송리) 힐링 체험

기‘세븐틴 In The Soop’은 유튜브 조회 수 20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며 숨겨진 안동의 명소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어, 3월에는 안동시 임동면 일대를 배경으로 MBCevery1‘시골경찰 리턴즈’를 방영해 안동만의 호반관광자원, 명품 고택과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전국민에게 각인시켰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드라마 ‘악귀’는 김태리, 오정세 등 스타 배우를 통해 미스터선샤인-만휴정에 이은 ‘드라마 촬영명소 도시’로 입지를 다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하반기에는 TV는 물론 OTT 화제의 인기 프로그램인 ENA-SBSPPlus‘나는 솔로’가 7~8월 중 8주간 방영되어 여름 휴양객들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산서원 등 잘 알려진 관광명소는 물론 시사단, 고산정 등 숨겨진 명소를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담고 안동의 대표 음식과 핫플레이스를 전국에 소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만의 특색을 살린 킬러콘텐츠를 보강하고 전방위적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매력도시 안동의 도시이미지를 드높이며 글로벌관광도시로서의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지역주민 대상 전기절약 캠페인 시행

지난달보다 전기 덜 쓰시면 한울에너지팜에서 선물 드려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하계 전력피크 시기를 맞아 에너지 소비 관련 절약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동참하고자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주민 대상 전기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한울에너지팜을 방문해 전월 대비 당월 전력 사용량 절감을 인증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은 여름철 무더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면 자수 손수건이다.

전기요금 고지서 외에 전자고지서,

관리비 내역서 등 전월 대비 당월 전력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금년 7월부터 8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만 인정하며, 캠페인 참여는 가구당 한 번만 가능하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 또는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i_hanul)을 참고하거나 한울원자력본부 홍보부(054-785-2941)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역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의 따뜻한 자원봉사 손길, 수해복구에 구슬땀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법전면 피해주택 방문해 복구활동 펼쳐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 19명, 법전면 침수피해 가구 수해복구 지원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 피해 현장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회원 50명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법전면의 피해주택 3곳을 방문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들 동안 협의회 회원 총 50명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자원봉사에 동참해 주택 내부로 밀려 들어온 토사를 제거하고 집기를 세척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수해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토사물로 오염된 집을 보고 언제 다 치울지 막막했었는데 신속하고 깔끔하게 치워주신 바르게살기 회원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기택 바르게살기운동봉화군협의회 회장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며 “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에 임한 회원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는 최근 기록적 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현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수재민들을 위로·격려했다.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법전면의 수해현장을 찾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를 위해 침수됐던 가재도구를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회원들이 모여 직접 준비한 떡과 빵 각각 100인분씩 이들 치를 봉화군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 등의 간식으로 제공



다음으로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는 최근 기록적 폭우에 따른 수해복구 현장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수재민들을 위로·격려했다.

▲‘한국생활개선봉화군연합회’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법전면의 수해현장을 찾아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를 위해 침수됐던 가재도구를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회원들이 모여 직접 준비한 떡과 빵 각각 100인분씩 이들 치를 봉화군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 등의 간식으로 제공



스포츠의 메카 울진, 2024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 유치 확정!

천혜의 자연과 최상급 스포츠 인프라 갖춰

손병복 울진군수,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 팀과 각종 대회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울진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2024 춘계 중등 U-15 축구대회’를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진군은 많은 방문객이 울진을 찾도록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종목에 걸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회 유치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6개월간 대한축구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타시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춘계 전국 중등 축구대회’는 울진군종합운동장 등 관내 6개 구장에서 치러진다.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열리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태극전사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

선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회로 전국 중학교 80여 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해 예선 조별 리그, 본선 토너먼트를 걸쳐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군은 학부모와 축구 관계자를 포함하면 행사가 열리는 보름 동안 연인원 3천여 명 정도가 울진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로 인한 직접 소비 효과 14억 원을 포함해 연간 총 30억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스포츠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 팀과 각종 대회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진군은 온화한 겨울 날씨와 함께 산림·바다·온천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어 국내 최고의 동계 훈련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호우경보 2단계 전 공무원 비상체제 유지

김주수 의성군수,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철저한 현장점검과 대비로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성군은 지난 18일,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비상 2단계 대응에 따라 전 공무원 비상체제 유지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성군은 저지대, 저수지 범람 위험, 사면 붕괴위험, 산사태 위험 등으로 202가구 639명이 마을회관, 친척·지인 집에 사전대피 중이며, 이에 의성군 전 공무원이 담담 읍면에 배치

되어 현장을 지키며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군은 ▲하천변 산책로, 둔지 출입 자체 당부 ▲피해지역 및 재해복구사업장의 재피해 방지 ▲지붕, 옥외간판 등 호우 및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결속 및 결박 ▲재난물자 및 방송,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한 군민 홍보 활동 전개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대비가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위험지역, 상습 침수지역 등 철저한 현장점검과 대비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한국생활개선봉화군협의회’

여성기업주간맞아2023 경북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경북여성기업

경북도는 19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무경 국회의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 등 도내 기관·단체장과 지역여성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북 여성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여성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경영애로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오늘 행사의 시작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원 성금 전달로 시작했다.

회원사들이 힘을 합쳐 전달까지 모은 성금 1천만원과 행사장에 설치한 성금모금함에 모인 금액을 합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여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나누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의 따뜻한 마음에 행사는 더욱 훈훈해졌다.

행사를 주관한 김명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세대를 연결하는 여성경제인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여성경제인이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 경제인대회를 통해 우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이 주도하고 있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방에 살아도 행복한 지방시대에는 여성경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고, 여성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 함께 힘을 모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자”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보건소,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영양군보건소는 7월 19일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식품교육, 보충 식품 제공,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영양학적 위험요인을 줄이고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 및 기준 중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신규 대상자들에게 교육 참여 방법, 영양교육의 중요성, 올바른 식품 고르는 법, 향후 일정 등 영양플러스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사업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모가 든든하고 아이가 행복한 영양군 만들기’를 위한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라이온스클럽, 집중호우 취약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백미 기탁

김광열 영덕군수, “관내 어려운 집중호우 취약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사용

영덕라이온스클럽 문중근 회장은 지난 7월 18일 영덕군 관내 집중호우 취약가구 및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255포를 기탁했다.

영덕라이온스클럽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문중근 회장은 평소에도 주위 취약계층을 돕는 데 앞장서 왔으며, 특히 영덕라이온스클럽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후 취임 축하를 위해 모아졌던 백미 10kg 255포를 회원들과 함께 영덕군 관내 집중호우 취약가구 및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문중근 회장은 “영덕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영덕라이온스클럽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기탁한 백미가 집중호우 취약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임명되신 문중근 회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기탁해 주신 물품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 관내 어려운 집중호우 취약가구와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데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윤경희 청송군수, “군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윤경희 청송군수가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윤경희 군수는 지난 7월 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침수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비탈면 경사지 등 지역 곳곳의 위험지 현황을 직접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어서 저녁 10:30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과 비상대책회의를 가지고,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시행

2024년도 총 예산 165.3억, 27일 주민 설명회 개최

이세용 한울본부장, “사업자지원사업 담당자 상주,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 방법 안내하고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 18시까지 진행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한울본부의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은 총 165.3억으로 전년 대비 14.1억 증가하였으며, 공모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이다.

한울본부는 지역 내 기관·단체·주민



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27일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세용 본부장은 “특히 올해부터는 한울에너지팜 지역소통실에서 사업자 지원사업 담당자들이 상주하여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공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세부사항과 사업신청방법은 한울본부 홈페이지(www.khnp.co.kr/hanul/main.office)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www.ulji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울본부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054-785-2944, 2078)로 문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향후계획 설명 시간 가져

실종자 수색과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 집중... “군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안전문자등 재난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길”

예천군은 18일 오전 10시 예천군청에서 지난 13일부터 4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학동 예천군수는 “먼저 이번 호우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참혹한 상황에 큰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며, “용문·효자·은풍·감천면에 집중된 폭우로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18일 9시를 기준으로 사망 9명, 실종 8명이고, 현재도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군 전 지역에 전례 없이 쏟아진 비로 448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고,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임시거주시설에는 40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치 현황에 대해 김 군수는 “물폭탄이 남긴 주민 생활 곳곳의 피해현황을 긴급 복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무원 2,335명, 경찰 625명, 소방 716명, 군부대 2,949명, 민간 1,450명 등 18일 누적 총계 8,07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제방 유실, 상·하수도 시설 파손, 주택파손·매물, 축사파손, 정전·단수, 농경지 침수 등 사회기반시설과 전 분야에 응급 복구를 위해 420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호우로 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복구가 필요한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당한 사망자 추모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1주일) 애도기간으로 정해 검은 리본을 착용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이재민 관리와 시설응급복구, 자원봉사자 등 분야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과 복구에 전념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민들께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안전문자 등 재난안내에 귀를 기울여 위험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2023년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글짓기 공모전’ 개최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치매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3년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의 주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 치매 환자에 대한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영상은 대구광역시치매센터에서 제작한 ‘할머니와 네 마리의 동물들’ 외에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제작 영상들이 마련됐다.

7월 3일부터 접수가 진행 중이며, 8

월 28일까지 대구지역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 분량은 ▲저학년은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5매 이하 ▲고학년은 200자 원고지 5매 이상 10매 이하로 손글씨나 워드프로서서로 응모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주제에 맞게 글을 쓴 후 대구광역시치매센터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대구광역시치매센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6점을 선정해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10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선정

된 작품은 오는 9월 ‘대구광역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 시상하고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아이들에게 치매라는 주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공모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다”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충남 논산시 성동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 수해지역 복구 약속.. "이럴 때 돈을 쓰려고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아껴온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에 이어 논산시 성동면을 찾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와 육묘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재배농가를 방문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통령에게 "이 지역은 논산천과 금강천에 인접한 저지대로 인근 독이 무너져 수박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잠겼다"며 상황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직접 물에 잠긴 수박을 만져보며 "이걸 수확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백 시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고, 김태홍 충남지사는 "이 지역 수박농가의 80퍼센트 정도는 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은 시름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주민이 "대통령님 큰일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하자, 대통령은 피해주민의 손을 꼭 잡고 "많이 놀라셨겠다.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며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주민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주민 옆에서 현장을 지원하던 논산시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느 부서에 근무하냐"고 물었고, 시청직원이 "미래전략실입니다"라

고 답하자, "사무실에서 펜을 들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나온 것을 보니 비상시국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면 어려움도 곧 극복하지 않겠냐"며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백 시장은 "피해가 큰 지역은 시 공무원들을 적극 투입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인근 마을의 방울토마토와 오이, 상추 등 묘종을 키우는 육묘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육묘장 비닐하우스는 성인남자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서 웃자라버리거나 시들어버린 묘종들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묘종은 크기가 작아야 하는데 콩나물같이 키가 크게 자라서 못 쓰게 됐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곁에 있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물에 빠진 묘종은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럴 때 돈을 쓰려고 정부가 그동안 재정을 아껴왔다"며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마침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을 넘으면서 하루종일 내리던 비가 멈추며 서쪽 하늘부터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준남/기자



목포경찰 '위조 대통령상장' 수사... 지역 예술인 9명 대상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의 상훈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예술인들이 특정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장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범인 브로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범 측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상자들이 위조 사실 알고 미술대전에 출품했는지 여부 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위조된 대통령상 수상 경력은 목포시가 매년 매입하는 지역작가 작품 구매에도 유리하게 작용 될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매입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번 상장 거래 의혹을 받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실제 1점당 수백만 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특정사가 개최한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주최사는 별도의 수여식 없이 상장을 택배로 수상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의 상훈 기록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2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예술인들이 특정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상장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범인 브로커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범 측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상자들이 위조 사실 알고 미술대전에 출품했는지 여부 등 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위조된 대통령상 수상 경력은 목포시가 매년 매입하는 지역작가 작품 구매에도 유리하게 작용 될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매입하고 있는 목포시는 이번 상장 거래 의혹을 받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실제 1점당 수백만 원의 시비를 들여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의 한 특정사가 개최한 '미술대전'에 작품을 출품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주최사는 별도의 수여식 없이 상장을 택배로 수상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 작품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

브로커 통해 상장 거래 의혹... 행안부 상훈 기록 없어 위조된 상장 등 경력 부풀려... 목포시에 작품 판매 혜택

면 출품 작가의 자격은 구입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전국규모의 미술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 미술인으로, 5년 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규정 하고 있다.

작품 1점 당 500만 원 이내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작품의 구입 심의위원회는 당연직(부시장, 관공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 위원과 위촉직 위원(국내 미술단체 회원, 장르별 작가, 학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출품 당 해연도 단독 개인전 개최와 작가의 수상경력 등을 구입 결정의 중요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작가는 "대통령상을 받으면 호(號)당 가격이 1만 원대에서 30만 원대로 뛰는 등 자치단체에 작품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자기 작품 가격의 단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상 거래가 아니었겠냐"고 꼬집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통령상 수상 경력이 있을 경우 작품이 선정되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며 "원칙에 따라 수차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입한 작품이므로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가의 경력 등의 조화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종배/기자

고양시, 교량 등 시설물 '365 상시점검 체계' 구축

교량 등 시설물 284개소 상시안전점검 용역 시행

고양특례시가 교량 등의 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상시점검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지난 17일 고양시의 교량 등 전체 시설물 284개소를 대상으로 상시안전점검을 마쳤다고 전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160개소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일제 점검과 공공시설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고양시는 4월 긴급안전점검, 5월 1기 신도시 교량 안전실태점검, 6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교

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고양시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A(우수) 16개소, B(양호) 179개소, C(보통) 84개소였다. D(미흡).E(불량) 시설물은 없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는 지난 17일 교량 등 시설물 전체 284개소에 대한 법정 점검 외에 상시안전점검 용역을 추가 시행했다. 특히 이번 용역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함으로써 육안 점검의 약점을 보완하고 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제도도 개선했다. 시는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수행자를 대상으로 사후수행능력평가를 실시

해 전문성을 갖춘 점검수행자를 선정했다. 또한 소규모 교량에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고양시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앞서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시급성, 소요 예산, 손상·결함 정도를 고려해 단기 및 중장기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시 재난관리기금 등의 예산을 확보해 이번 달 중으로 보수 및 보



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장마철에 맞추어 배수구 막힘, 도로 파임 현상에 대한 복구 작업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 제도를 개선해 고양시를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봉화 한약우

약초연자리는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충남도, 50년 넘게 단절된 금북정맥 연결한다



강원문화재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0회 평창대관령음악제

7월 26일~8월 5일 평창 알펜시아 일원에서 '자연'을 주제로 개최

도,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등과 생태통로 설치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와 환경부, 천안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이 50년 넘게 단절된 천안 목천 '금북정맥'을 다시 연결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도는 18일 천안시청에서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신동현 천안시부시장,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본부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이 '천안 목천 생태축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6년까지 총 393억 원을 투입해 단절 구간에 길이 98m, 폭 30m의 생태통로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생태축복원협의회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사업 주관기관인 도와 천안시는 지방비 부담 및 행정적 지원, 유지관리(천안시)를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시공해 최종적으로 생태통로를 완공하며, 국립생태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태적 자문과 점검(모니터링)을 맡는다.

금북정맥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남하해 태안군 지령산까지 연결된 약 240km 산림생태축으로, 백두대간에서 분기된 한반도(남한) 9개 주요 정맥 중 하나이다.

충남의 핵심 생태축으로 생태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지역이지만,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이후 시도 22호 도로가 설치되면서 복합 단절된 상태로, 야생동물 유전자 격리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구간은 천안-당진간 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교통 차단 시 국 민불편과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다행히 올해 초부터 도, 환경부, 천안

시,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이 공사 공법 변경, 사업비 절감방안, 기관별 역할분담 등 수차례 대안마련을 논의한 결과, 경부고속국도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안을 도출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천안 목천 금북정맥이 복원되면 단절 구간 북쪽의 안성 칠장산, 천안 성거산에서부터 남쪽의 예산 덕숭산, 태안 지령산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산림 생태축의 연결성을 확보, 국도의 혈맥을 잇게 된다.

이들 기관은 생태통로가 야생 동·식물의 서식과 이동을 도와 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목천 금북정맥은 도의 단절된 생태축 중 복원 시급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 생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0회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11일간 개최된다.

제1회 대관령음악제가 '자연의 영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후 올해 20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다시 '자연(Nature)'을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한다.

올해 2월 신임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양성원 첼리스트 총괄 기획하에 20회의 '콘서트', 8회의 '찾아가는 음악회', 새롭게 선보이는 '찾아가는 가곡 음악회 '시네마 콘서트', 교육프로그램 '대관령아카데미'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고품격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자연(Nature)'에서 영감을 받은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 베토벤의 제4번 교향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보물에도 ESG 일환으로 친환경 재생 용지, QR코드, DID 등을 활용하여 자연을 반영했다.

지난 5월 3일 티켓 오픈 이후 개·폐막공연을 비롯한 5개 공연이 일주일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6월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후 티켓을 두 차례 추가 오픈했음에도 1주차 공연의 평균 예매율은 이미 80%를 달성했다.

강원문화재단 신현상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인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올해 20회를 맞아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을 선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고품격 클래식 음악과 함께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티켓은 공연 전날까지 음악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2만원~10만원으로 공연별 상이하며, 강원도민, 학생(초등학교~대학원),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예술인 패스카드 소지자, 경로우대(만 65세 이상)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부문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패키지 상품은 전화예매를 통해 가능하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산사태 우려 지역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 진행

대피소 방문해 "재난 대비는 과하다 싶도록... 불편함 견뎌달라" 당부

박경귀 아산시장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인 송악면 유곡리를 방문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주민들을 만나 위로했다.

18일 박경귀 시장이 방문한 송악면 유곡 4리는 봉수산 자락에 있는 마을로, 2020년 아산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충남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호우경보가 닷새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지속된 비로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위험지역 거주민을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피시킨 뒤, 산사태 발생 징후를 모니터링 중이다.

박 시장은 우선 2020년 산사태 발생지를 방문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지반 상태와 예찰 주기, 경보 시스템 등을 두루 확인했다.

박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민이 산사태 징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올라왔다 인명 피해가 생기는 일이 생겨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안전지역에 대피시키고, 산사태 발생 징후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불교 문화재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특히 봉수산에는 천년고찰 봉곡사도 위치한 만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사찰 주지스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문화재 유실에 대비하고, 비가 그치는 대로 이미 시공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어 주민 대피장소인 유곡 4리 마을회관을 방문했다.

유곡 4리에는 45가구 88명이 거주 중으로, 주민들은 사흘째 대피장소에 머물고 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일찌감치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인공 송악저수지의 수위와 사방댐 수위를 조절해 왔다"면서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반 약화에 의한 산사태 우려는 여전히 상황"이라며 긴급 대피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들은 시의 선제 조치와 안전관리에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사흘째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박 시장은 "빠르게 징후를 확인해 대피 명령을 내린다 해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고생스럽겠지만 비가 그치고 지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미리 피해 계시는 게 낫다"고 설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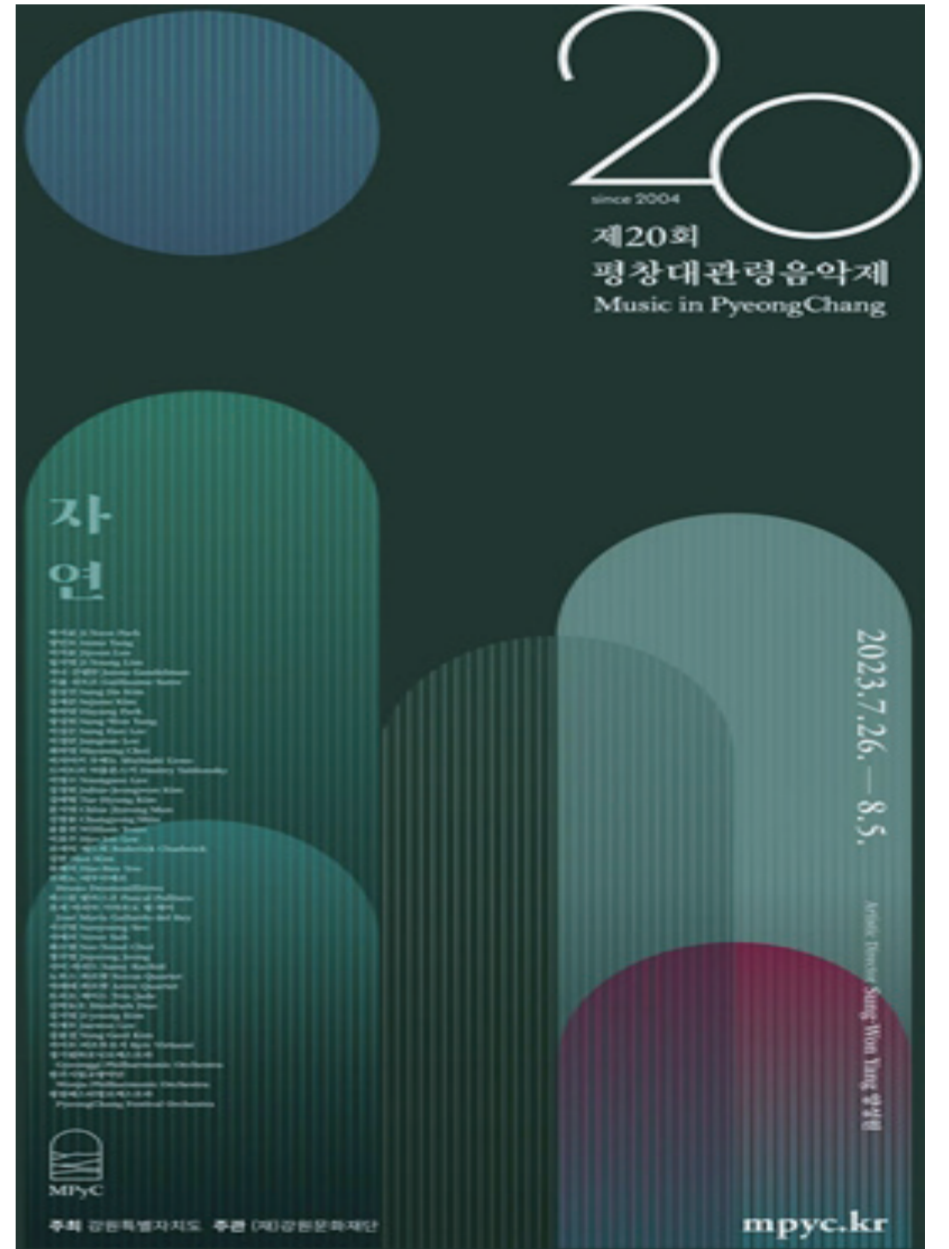
박 시장은 "재난 대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조금만 더 불편함을 견뎌달라"고 위로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계속된 폭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진 중인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말까지 비 소식이 예고된 만큼, 끝까지 각별한 사명감과 각오로 집중호우에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여름철 야간 운영 추진

태백시의 대표 관광명소인 오로라파크와 탄탄파크가 제8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인 '태백 선선 페스티벌' 개최 기간(2023.7.28.~8.6.)을 포함한 여름철 성수기 동안 야간 운영을 실시한다.

'오로라파크 탄탄파크'는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탄탄파크'는 이후 8월 31일까지 토요일 추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오로라파크는 제4회 황연 기자회견 축제(2023.7.14.~7.16.)가 개최됨에 따라 7월 14일(금)에서 7월 15일(토)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오로라파크는 세계 5대역, 별빛전시관 등 시설 전체를 개방하며, 특히 눈꽃전망대를 개방하여 야간 경관 관람이 가능하다. 탄탄파크 역시 야간 콘텐트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태백시

를 찾는 관광객들이 은하수가 쏟아지는 태백의 여름밤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올여름 태백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야간 운영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단구공원 내 원주 아트갤러리 준공된 지 1년 2개월만에 드디어 시민 품으로

7월 18일 오후 2시 개관식 진행

지난 해 5월 준공 후 건축물 하자 등으로 인한 사유로 1년 이상 문을 열지 못하던 단구공원 내 원주 아트갤러리가 7월 18일에 드디어 개관한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민선 7기 원주시 소규모 조각미술관 권역별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됐으나, 온습도 조절장치 등 미של관 필수시설의 부재와 건축물 하자로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혈세 낭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대로 바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동안 보수를 완료했다.

아울러, 작품 감상 동선이 협소하고 벽면이 곡면으로 설계돼 전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아트갤러리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기로 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개관을 기념하여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기획전시 '동심과 예술가의 콜라보'를 개최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작품을 더 쉽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과 어린이 화가 등이 참여하여, 미술 작가 작품 15점과 어린이 아트웍 30여 점을 전시했다.

이 밖에도 전시실 내외부에 조형물과 트릭 벽화가 제작됐으며, 페이퍼플라워 인스톨레이션아트 등 다양한 콘텐트로 아트갤러리가 채워진다.

전시를 주관한 사단법인 아트강원 이사장 김병호는 "밝고 투명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그린 이번 기획전시를 통해 원주시민에게 예술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강수 원주시장은 "장기간 방치되어온 아트갤러리를 드디어 시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아트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트를 제공하여 시민의 세상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수출 자문관 사업, 충북 수출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수출 자문관 사업 상반기 성과 보고회 개최

충청북도는 18일 청주시 파티가든이 안 회의실에서 경제통상국장과 청주 상공회의소, 충북 수출 및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23년 수출 자문관 사업 상반기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출 자문관 사업은 충청북도의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서 '수출·FTA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사업'과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활용 수출지원사업'의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의 수출·무역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중년을 수출 자문관으로 활용하여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기업의 수출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기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제고, 자문관 인적 네트워크 활용, 해외출장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금년 상반기에 어려운 통상 환경속에서도 수출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을 통해 47개 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지원 기업의 수출은 1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

했고, 수출기업의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도 1,053명으로 전년 대비 90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온라인마케팅 자문관 2명은 온라인 수출 희망기업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라인 사업 역량에 맞추어 온라인에 최적화된 제품 경쟁력 확보, 온라인 채널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제고 및 수출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이 사업은 그 동안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알려지면서 최근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타 지자체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A자문관들을 자문하던 자문관이 그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신중년의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하여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잠재기업 역량 조사 등 도내 수출기업을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신규기업 모집

7. 24 ~ 8. 31일까지 신규 참여기업 신청·접수

경북도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신규기업 모집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라리안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보유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선정규모는 5개사 정도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3억 원 이상의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등이다.

접수 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서류 및 발표(PPT)·실제품 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용,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용자 한도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실라리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신규기업 모집에 지역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고용노동부, 청년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삼성 싸피 10기 입학

이성희 차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기회 제공 확대 약속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월 18일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10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날 청년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과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CR담당), 입학생 대표 100여 명 등이 참석했고, 나머지 950명의 입학생은 서울·대전·구미·광주·부산지역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의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수료 후 취업률과 만족도가 높아 입학 경쟁도 치열하는 등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운영에 필요

한 모집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했다.

이성희 차관은 10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며, "싸피(SSAFY)라는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싸피(SSAFY)와 같이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이 주도하여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등의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맞손, 고용 기회 확대 협력

경기도일자리재단-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고용 기회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민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채용 지원을 한다.

양 기관은 18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삼성 협력사에 맞춤형 인력제공 ▲기업의 맞춤형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사 매칭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협력사 채용정보 연계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우수한 구직자를 발굴해 삼성 협력사로 취업을 연계하고,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는 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도내 역량이 있는 구직자를 대기업 협력사로 채용 연계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고용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상생협력해 도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재단은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분야에서 다년간 기관 전문성을 축적해 온 만큼 앞으로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더 많은 기업 내 일자리 발굴을 위해 7월 중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전자와도 협약 사항을 논의 중이다.

재단이 운영중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회원수 184만명) 내 '탐나는 일자리정보관'에 접속하면, 대기업 협력사, 금융사·정부기관 추천 기업 등 도내 추천 일자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영양군
TECHNOLOGY HUB
www.yy.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대구 동구청, 찾아가는 상설면접 일자리 다(多)잡(job)데이 실시

구인업체 요구시 구직자와 함께 업체로 직접 찾아 면접지원 및 상담실시

대구 동구청이 찾아가는 일자리 상설면접 '다(多)잡(job)데이'를 시행한다.

대구 동구청 일자리지원센터가 하는 상설면접 사업으로, 구인업체의 요청 시 업체가 희망하는 구직자를 알선해주고, 구직자와 업체의 현장면접을 지원하는 기업맞춤 인재 채용을 위한 고용지원사업이다.

대구모로 진행되는 채용박람회와는 다른 방식이다. 업체의 요구 시 수시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구직자는 업체를 직접 찾아 면접을 진행하고, 구직자는 자신의 근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구청은 앞으로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맞춤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기존의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전문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일자리 다(多)잡(job)데이 상설면접을 통해

해 구인·구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설면접을 희망하는 구인업체는 동구청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동현/기자



영양군
TECHNOLOGY HUB
www.yy.go.kr

영양을 이끄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백골원, 축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마을,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해남보호공원, 반딧불이전원,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휴양림, 영양공력발전단지, 울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전남교육청, '2023.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 1학기 운영 성료

12개의 아름다운 섬 이야기가 학생들의 글로 피어나다!

전라남도교육청이 7월 18일 비금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2023.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 1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마쳤다.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는 광주교대 최원오 교수와 예비교사들이 직접 전남의 섬 지역 소재 학교로 찾아가 섬 이야기를 주제로 글쓰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비금초(신안) 3, 4학년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6월 13일 조도초(진도)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댄 2023. 글로 피어나는 섬 이야기는 의신초(진도), 노화중(신안), 임자초(신안), 증도초(신안), 안해초(신안), 압해초(신안), 압해동초(신안), 보길동초(완도), 보길초(완도)를 거쳐 이날 비금초에서 1학기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12개의 섬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의 자연생태와 인문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은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대학교수, 예비교사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이어서인지 글쓰기 활동에 더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섬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됐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사로 참여한 한 예비교사는 "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1박 2일 수업이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 2년 후에 받을 내일게 될 교직 생활에 이번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2학기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과 섬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배/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보고회 대거 입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가 ▶우수학교 선정에 4교 ▶학점제 수기공모전 학생 부문에서 5교(11명) ▶교원 부문에서 2교(2명) 등 대거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우수학교는 전국 직업계고 선도학교 573교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운영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심사해 선발했으며,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표창은 8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표창 27교가 선정됐다.

이중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김봉영)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교장 이현준)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교장 박형인)와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교장 김진동)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직업계고 학점제 수기공모전에서는 학생 부문(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에서 한국주얼리고등학교 바다은 학생이 '고교학점제는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를 비롯해 5교에서 11명이, 교원 부문에서 2교에서 2명(최우수상, 우수상)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종남/기자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결의 다짐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 실시

경북교육청은 17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4연속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년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최근 3년 연속 종합우승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경북 직업계고의 기능 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4회 연속 종합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 내용은 △기능경기대회 실태 분석 △기능 지도 지원 방안 모색 △기능대회 참가 학생 안전 지도 등이다.

그리고 최근 기능 명문 학교로 발돋움한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우수한 지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호우 대처 비상 대책회의' 실시

학사운영조정 학교장 자율 검토, 교육시설 피해 최소화해 전력

경북교육청은 16일 15시 교육감 주재로 본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대처 비상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16시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을 대상으로 영상 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호우가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추가로 내린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을 피해 최소화 △학사 운영 조정 검토 △공사 중인 시설물의 안전 조치 △피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지원과 피해 학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지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설 피해 8건

(운동장 침수 1건, 토사 유입 3건, 웬스 파손 1건, 나무 쓰러짐 1건, 울벽 붕괴 1건, 임야 유실 1건)이 발생했으며, 주민 임시 주거시설로 학교 강당(1교)을 제공했다.

침수된 운동장은 배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 피해는 현재 복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호우로 학교 강당에 임시 주거하던 주민 80명은 16일에 모두 귀가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안전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교육지원청도 비상근무를 실시해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 기관과 연계해 비상 사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국·과장 회의와 교육지원청교육장 영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피해를 입은 학교의 안전 조치, 경사면 방수포 보완 조치, 모래 주머니 추가 비치 등 교육시설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휴업,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조정은 기상상황을 주시해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고, 돌봄교실 운영 여부 등도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으로 호우로 인한 학생 및 교육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칸막이 없는 돌봄·교육 협력 나서

획기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8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산광역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은 당면한 저출산·인구 문제 극복 기반 마련과 아동 간 돌봄·교육격차 발생 방지에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획기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지난 6월 12일부터 관련 TF를 구성·운영하며, 프로젝트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협의해 왔다. 양 기관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교육과 돌봄의 '경계 없는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늘봄학교 TF를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락·대저·기장 등 농어촌 지역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 TF도 공동으로 운영하

기로 했다. 지원 연령과 재정 부담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으로 '리빙랩 활용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초등학교 1교, 총 4~5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양 기관은 전문가 그룹, 어린이, 시민 등이 참여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부산형 어린이 통학로 안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2자녀 가정에 30만 원을,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 원을 교육포인트로 지원한다. 대상은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고, 교육청 30%, 부산시 7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폐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전용 도서관, 들락날락, 돌봄센터 등 어린이 다목적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청과 부산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협력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고, 교육과 돌봄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시와의 이번 협력은 '교육'과 '돌봄'의 칸막이를 걷어냄으로써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승진/기자



7월 21~22일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만석공원에서 열린다

무궁화 전시행사, 무궁화 토크 콘서트, 각종 체험 부스 등 운영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가 21~22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는 21일 공방거리 상인회의 왕의 행렬, 무궁화 한복 패션쇼, 장안구 여성 합창단의 공연 등 사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오후 6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무궁화 가꾸기 콘테스트'가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 효원·창릉·수성·홍재·수주 등 수원 무궁화 5품종을 비롯해 무궁화 분화·분재 430여 점과 무궁화 1000주를 관람할 수 있다. 또 무궁화 품종 사진과 건조된

무궁화를 특수용액에 담아 보관하는 원예 소품 하바리움도 감상할 수 있다. 시민들이 축제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무궁화 팔찌·열쇠고리·부채 만들기, 무궁화 샌드아트, 무궁화 한지공예, 무궁화 나눠주기, 무궁화 미니 정원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마술쇼, 버스킹 밴드, 재즈 밴드 등 소규모 공연이 펼쳐지며, 오후에는 '무궁화 골든벨 이벤트'를 열고 우승자에게 소정의 푸른을 증정한다. 21~22일 저녁 주 무대에서는 온 가

축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를 1편씩 상영한다. 22일 오후 5시 제2야외음악당에서는 '나라꽃 무궁화 토티아보기'를 주제로 무궁화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와 지식을 무궁화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무궁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제33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축제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8월 인천에서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열린다

8월 4일부터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개최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주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인천TP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유튜브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팬(구독자), MCN 기업이 직접 만나는 긴밀한 소통의 장이다. 행사장은 △쇼케이스 △팬미팅 △참여형 프로그램 △굿즈 스토어 △라이브 방송 등 콘텐츠 카테고리 따라 구역이 나뉘고, 시간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또한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의 크리에이터 '조나단'이 이번 행사의 엠베서더로 밝히며 현장에서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참가객 사전등록은 8월 3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문화콘텐츠센터 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남/기자

제천호숫가음악제 한여름 밤 '산사 음악회' 열린다



개최한다. '위대한 사찰, 천년의 메아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KBS 임성민 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소프라노 송난영, 장서영, 이경진, 테너 최원진, 구대환, 바리톤 정태준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한다. 연주는 소리원 오케스트라(지휘자 김기웅)가 맡아 아름다운 영상 스토리와 우리 가곡이 어우러지는 클래식의 향연을 펼친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지광스님)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모처럼 열리는 산사 음악회인데다, 역사적인 문화유적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천 장락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세운 사찰로 전해져오며, 국가 보물 459호로 지정된 칠층모전석탑이 있다. 조직위원회는 "이곳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있어 오히려 그 진정한 가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 좀 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제천볼

교회 봉사모임인 문수회는 참석자들에게 국수 등 간단한 저녁 공양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호수가음악제 조직위는 집행위원들이 옥수수와 생수를 나눠줄 계획이다. 또 사찰에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올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사음악회는 무료 공연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단법인 선학원, 아세아시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제천호숫가음악제는 클래식 성악전문 페스티벌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제천 시민 40여 명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9월의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푸른 날, 우리 가곡 축제' 등에서 차례의 고품격 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성악 페스티벌을 표방하는 제천호숫가음악제는 제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순수 비영리모임인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2018년

정품호숫가음악제를 시작으로 내실을 다져왔으며, 2019년에는 한국관광공사 '9월의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 18일 제천문화관에서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제3회 제천호숫가음악제 송년음악회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라시대 선덕여왕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장락사. 이곳에는 1000여년이 넘도록 우뚝 선 대한민국 보물 칠층모전석탑이 있다.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자원이 이 공간이 좀 더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유적으로 다가서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음악회를 연다. 가까이 있어 오히려 그 진정한 가치를 잘 몰랐던 석탑 문화유산과 아직 채 발굴되지 않은 장락사의 문화유적 위에서 우리 지역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환기하려 한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성악 콘서트는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적 긍지와 함께 천년역사의 시공을 넘나드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최만식/기자

한국민화뮤지엄, 제9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일반부 결과 발표

124점 작품... 박찬호 '동결도' 대상 수상

전통 민화유산인 민화의 계승 및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에서 후원하고, 강진군에서 주최하며, 한국민화뮤지엄이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민화대전 일반부 공모와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에는 총 124점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박찬호 씨의 '동결도'가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동결도는 탄탄한 구성력과 치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안정적인 작화 실력으로 재현의 완성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최우수상에는 티안 씨의 '내일의 심장생'과 용지현 씨의 '서수낙원도'가 선정됐다. '내일의 심장생'은 미디어를 통해 민화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전통 속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여 현대 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서수낙원도는 서사적인 내용과 조형성이 표현된 대작으로 작품의 우수상 뛰어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진현수 씨의 '삼국지연의도', 이옥란 씨의 '너와함께 남해기행', 최선희 씨의 '황룡도'에게 돌아갔다. 심사에는 경주민화센터 이사장 이영실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흥인대학교 김이순 교수, 이정동 민화 원로 작가, 리움미술관 한주연 팀장, 한국민화뮤지엄 오슬기 관장 총 5인이 참여했다. 심사 방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심사위원의 개별

작품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으로 본상 수상작을 결정했다. 이번 일반부 공모전에는 상금 2,9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걸려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의 본상 수상작은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작품은 강진군에 귀속된다. 한국민화센터 이사장 이영실 심사위원장은 "올해 9회 공모전은 기량이 탁월한 작품들이 많았고 창작민화 역시 전체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민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전국 각지에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지원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10월 27일(금) 강진민화축제 개막식장에서 진행 예정이며, 수상작 특별전은 9월 1일(금)부터 12월 30일(토)까지 한국민화뮤지엄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한편, 《대한민국민화대전》은 한국민화뮤지엄의 모체이자 국내 최초 민화전문 박물관으로 강원도 영월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시작한 《전국민화공모전》에서 이뮤지엄의 개관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모전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생부의 경우 성인부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본 공모전의 활력을 실감케 했던 자리가 됐다. 추운호/기자

삼척시, 7월 26일부터 2023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 개최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삼척해수욕장 일원

삼척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삼척시 대표 여름 축제인 '2023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민선 8기 시정방침인 활기찬 문화관광의 기치 아래 삼척해변 피서객 유치와 관광도시 조성의 활성화 기반확보를 위해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던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을 재개하기로 하고 공연, 체험 행사,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올해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은 '썸, 바라던 바다'를 주제로 젊은 감각의 콘텐츠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마음속에 남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행사 기간 삼척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7월 26일 썸머 나이트에 21학번, 7월 27일 썸머 쿨 나이트에 덕평스, 7월 28일 썸머 핫 나이트에 박시환, 배기성, 홍경민, 7월 29일 썸머 락 나이트에 백지영, 핑키투나잇쇼, 7월 30일 썸머 힙 나이트에 다이나믹듀오, 쏘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되고, DJ 시스템의 DJ 스테이지와 버스킹 공연도 운영된다. 또한, 삼척해변에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 에어수영장 등으로 이루어진 수중 놀이 공간인 워터 그라운드도 운영되고, 펠로테라피 체험, 물총 이벤트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그리고 7월 28일과 7월 30일 저녁에는 700대의 드론이 삼척해변의 밤하늘을 멋지게 수놓을 드론 라이트쇼, 7월 29일에는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썸시작, 푸드트럭 존 운영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해변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플라마켓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가득한 축제장을 만들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해변에서 열리는 2023 삼척 비치 썸 페스티벌을 통해 일상에 벗어난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삼척만의 특색있는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알려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삼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 스트리트 캔버스 사업 추진

녹사평역 광장 가로 5미터, 세로 2.5미터 대형 가벽 설치

서울 용산구가 8월부터 녹사평역 광장에 대형 그래피티(graffiti) 작품을 선보이는 '스트리트 캔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태원 특색에 걸맞는 명소화 사업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 하려는 취지다. 그래피티(graffiti)는 스프레이로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한다. 근래에는 거리 예술(street art)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구 관계자는 "이태원 문화와 거리 환경을 볼 때 그래피티 작품이 어울릴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래피티 작품이 설치될 녹사평역 광장은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스케이트보드 명소다. 주말이면 인근 스케이트보드샵에서 강습을 주기적으로 열기도

한다. 작품 주제는 장소 특성(다문화·글로벌)과 계절 특성(크리스마스)을 고려한다. 작업 후 전시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12월까지 총 작품 4개를 선된다. 작가는 (사)한국합합문화협회에서 추천 받는다. 구는 내달 초 가로 5m×세로 2.5m 규모 캔버스 구조물을 설치한다. 구조물은 강풍을 대비해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일출 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도 설치한다. 그래피티 작품 완성에 걸리는 기간은 2일 가량이다. 구는 작업 과정을 저속촬영(타임랩스, time-lapse photography)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구 소셜네트워크 5중,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이태원에 설치한 야간 경관 조명이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는 상인들의 반응을 전해 들었다"며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사업 성과도 면밀히 살펴 내년 사업계획

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에서 이태원역을 잇는 거리에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별해는 밤'을 진행했다. 매년 10월 개최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올해 미개최 한다. 최만식/기자



2023 경산 워터 페스티벌 축제 전격 취소

경산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던 '2023 경산워터페스티벌'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산시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감안하여 경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현철 경산시장장은 "스릴 넘치는 도심속 워터파크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고, 신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피해복구 지원과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2023 경산 워터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 한 곳인 경산에서 시민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새로이 기획한 여름 축제인 워터플레이존·EDM풀파티·서핑골프 등 물놀이와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송광삼/기자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